

0% 저물가 시대에도 서민들만 '부담'

겨울철 앞두고 난방비, 김장비용도 켜짐...서민부담 ↑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0.2% 比 서민물가 두자릿수 상승

0%대 저물가에도 서민들이 기 초생활비로 쓰는 대중교통비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잠잠하던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 가격도 김장철에 맞춰 폭등하면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택시요금은 전년동월대비 14.8% 올랐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14.6%포인트(p)나 높다.

택시요금은 최근 6개월새 15%나 올랐다. 지난 4월 10.1% 상승 이후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개월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서민의 밥'인 버스요금도 올랐다. 11월 시내버스요금 상승률은 4.2%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초 0.2% 상승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버스요금 상승은 올해 버스기사의 임금이 인상되고 버스요금도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경기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이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버스과업에 대해서도 요금인상은 없다고 선언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와 김장 채소 가격 상승도 심상치 않다.

11월 지역난방비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했으며, 도시가스요금도 같은 기간 3.6% 상승했다.

지역난방비는 8월부터 4개월 연속 3%대 상승이 계속됐으며, 도시가스는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째 3%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서민들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배추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6.6% 상승했으며, 배추와 함께 김장에 쓰이는 무도 같은 기간 67.4%나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날씨 등의 영향으로 채소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나 배추와 무만은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채소의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큰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물가대책으로 비축물량 배추 7000톤과 무 4000톤을 비롯해 계약재배 물량 배추 4만4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추 가격은 지난 10월 66% 상승에 이어 11월에도 50%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오름세가 계속됐다.

김장채소 가격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도 김장비용 인상을 우려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올해 30만원 내외로 지난해 27만원보다 약 10%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분유가 수요 대폭 감소...할로 모색

국내 분유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운 수입 분유 맹공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제조 업체와 대형마트가 소비 확대에 가장 효율적인 가격 인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대표 제품 가격 내려가... 할인 행사+출고기 인하 복합적 작용

은 지난해 22.2%에서 올해 20.9%로 낮아졌다.

분유 업계 관계자는 "부모들은 아기에 크게 탈이 없다면 '갈아타기'에 부담을 느껴 처음 시작한 분유를 유지한다"며 "분유 업체의 산후 조리원 영업이 더욱 치열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주요 소비층 영유아에서 중장년으로 확대

2일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이달 매일유업 애플루트 3단계 800g의 판매 가격은 1만58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말 1만8400원보다 약 14% 내려갔다. 남양유업의 임페리얼 드림 XO 3단계 역시 같은 기간 1만84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8.5% 떨어졌다.

이처럼 분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형마트의 자발적인 할인 행사뿐 아니라 업체의 출고기 인하도 계속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국내 분유 시장 성장이 정체돼 있어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며 "납품 가격이 낮아지면 할인 행사에 여유가 생긴다"며 설명했다.

분유 시장은 아기의 주식인 모유를 대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2010년 전까지 꾸준한 신생아 출생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했다. 하지만 초혼 연령 증가와 저출산이 발목을 잡았다. 합계 출산율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실제 남양유업의 전체 매출에서 분유가 차지하는 비율

최근 '유기농+프리미엄'을 앞세운 해외 제품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 분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3% 급증했다. 전체 분유 매출에서 수입 분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8%에서 지난해 23.5%로 상승했다. 올해는 36.6%까지 치솟았다.

분유 업계는 유유 산업을 기반으로 상품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일부 제품에 회사 전체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저출산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인 전망도 다각화를 서두르는 이유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중장년층이 대상인 건강기능식 셀렉스를 내놨다. 국내 실버푸드 시장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14% 고성장을 이뤄내며 독자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기조로 주요 소비 대상인 영유아층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중장년층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 3분기 누적순익 24.6% 급감... '손해율 급등에 직격탄'

금감원, 장기적 경영 내실화 중요성 부각

올해 1~3분기(1~9월) 손해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4.6% 감소했다. 장기·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이 치솟으며 보험영업 손실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그나마 채권처분이익 등 투

자이익으로 순이익의 감소 규모를 줄였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시절 매입한 우량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이익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수익 개선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며 경영 전반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2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에서 영업 중인 30개 손보사의 '2019년 1~3분기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을 보면 손보업계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4년 보험사의 회계연도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늘던 1~3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2014년 3분기 누적 2조원이던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2015년 2조3000억원(13.7%), 2016 3조원(31.9%), 2017년 3조5000억원(16.8%)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2조9000억원(-17.6%)으로 다시 2조원대로 내려온 후 올해 2조원 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통 보험영업순익과 투자영업순익에 좌우된다. 올해 1~3분기 누적 보험영업순익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106.2%)이나 늘었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치솟으며 손실확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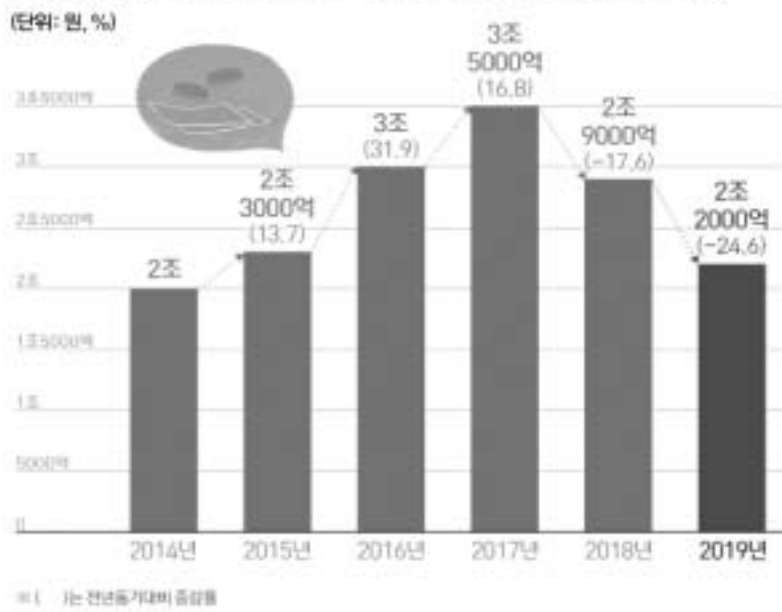
장기보험만 놓고 보면 손실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1000억원(48.1%) 늘었다. 판매경쟁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올해 9조5000억원으로 11.6% 증가했고 실손보험 등 보험금지급이 같은 시기 각각 3조3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4.7% 늘어난 영향이다.

자동차보험에선 8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정비요금 인상과 취업가능연한 상향 등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손실 규모가 6000억원(303.1%)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매출액)는 66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3000억원(5.2%) 증가했다. 장기보험 판매 경쟁 확대 등에 따른 결과다. 매출액 성장률은 2014년 보험사 회계연도 변경 이후 2015년 5.4%, 2016년 5.0%, 2017년 3.1%, 2018년 2.8%로 매년 줄어들다가 올해 5.2%로 반등했다.

금감원은 "손보사는 현재와 같은 단기적 외형경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전반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연도별 1~3분기당기순이익 현황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